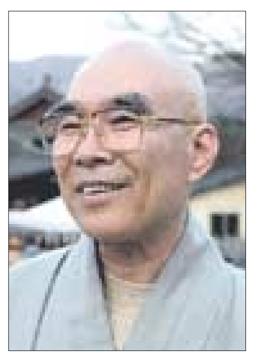
백일법문
장경각편집부 편/장경각

"불교 요체 중도로 수렴 참선하는 이유 알게돼"

고우 스님(각화사 선원장)



저는 공부에 도움을 주는 책으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자주 추천하곤 합니다. 이 책에서 성철 스님께서 <백일법문>에서 술한 경전과 조사(祖師) 어록을 살피며 제시한 불교의 요체가 중도(中道)로 수렴됩니다.

이 책 앞부분의 유식(唯識)관련 부분만 5~8번만 읽어보아도 왜 참선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불자님들이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등 중요한 경전만 공부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철스님 100일간 법문한 내용 수행자·불자들에 귀중한 지침

성철 스님이 1967년에 해인총림의 방장으로 추대되면서 백일 동안 한 법문을 정리하여 두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 <백일법문>이다. 불교 전반에 걸쳐 두루 밝히고 있는 이 설법은 오랫동안 많은 수행자와 불자들의 귀중한 지침이 되어 왔다. 상권에서는 근본불교, 곧 아함경과 남전대장경에 나타난 원시불교의 온갖 이론을 대승의 입장에서 풀이하고, 또 대승의 제반사상인 중관과 유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하권에서는 천태와 화엄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의 요점과 선사상의 핵심인 선종의 근본이 돈오에 있음을 여러 조사의 어록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백일법문>은 단순한 법문집을 넘어 현대인들의 구도열과 지식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매력을 답고 있다. 법문하면 으레 영험담이나 신화적 내용이겠거니 하지만 의외로 합리적이다. 과학적 사실만을 맹신하며 이성적 오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적절한 소재를 답고 있는 것이다. 스님의 법문에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불변의 법칙과 같은 내용이 등장하고, 이것을 반야심경의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원리와 접목해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전의설법(轉意說法)을 하셨듯이 스님은 과학적 사실을 설법의 방편으로 활용하셨다. 온통 서구적인 것, 과학적인 것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던 중생들의 마음을 스님은 읽고 계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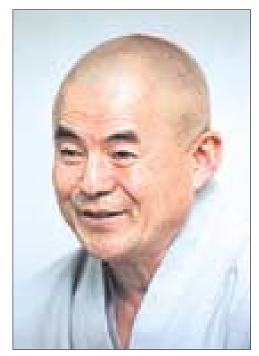
스님의 설법에는 신심에서 묻어나는 힘이 있으며, 대중들과 호흡을 함께 나누는 생생한 분위기도 담겨져 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획되고, 논리적 문장으로 서술된 책과는 느낌이 다르다. 불자들은 이 책을 통해 불교에 대한 생각을 전환해, 매일 독송하지만 그 가치를 몰랐던 반야심경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철 스님 생시에 제자들의 노력으로 육성법문을 정리해서 출간된 <백일법문>은 서구적 가치의 언저리에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심어주기에 손색이 없다. 대 선지식께서 눈 밝은 납자들을 향해 내린 자비의 법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무려 100일이라는 근대 한국불교사에서 보기 드문 대작 불사를 통해 탄생한 장광설이 아니든가. 게다가 <백일법문>에는 옛날 조사 스님들이 따라오지 못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한글로 쓰여진 법문집이라는 것이다.

예수는 없다
오강남 지음/현암사

"성숙한 믿음의 길 안내 종교의 책무 알게하죠"

혜국 스님(석종사 선원장)



저는 책읽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불교관련 서적이라면 거의 모두 읽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라 신도에게 책을 보내주면서 읽기를 권합니다. 불자들은 먼저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바탕으로 수행의 좌표를 설정한 뒤 '부처님의 마음'인 선(禪) 수행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관련 시비가 그 어느 때 보다 무성한 올 여름, 오강남 교수의 <예수는 없다>를 진지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유아적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또한 배타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지향해야하는 종교의 모습을 제시한 이 책을 통해 종교의 책무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 보기를 바랍니다.

열린사회 위해 '독선' 청산돼야 선명한 주제의식 공감대 넓혀

제목으로 얼핏 보면 불경스럽기까지 한 <예수는 없다>를 이해하기 위해 저자의 약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 오강남 교수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매스터 대학교에서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화엄의 법계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 맥매스터대, 마이애미대, 앨버타대, 서울대, 브리티쉬 컬럼비아대 등에서 객원교수를 지낸 바 있고, 현재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있다. 미국종교학회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 북미한국대학 학장 등 의 일도 맡고 있다.

저자는 예수의 믿음을 믿는다는 것,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전도열, 교리의 절대화, 획일적인 행동강령, 무조건적인 복종, 철통같은 소속감과 헌신 등을 특징으로 양적 성장을 거듭해온 한국 교회는 사람의 지적 · 도덕적 · 영적 성장을 가로막을 뿐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오만과 독선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다. 자기가 채택한 믿음만을 진리라고 굳게 믿는 근본주의자들은 비단 종교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눈에 띈다.

아직도 가정의 중심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믿는 남성 근본주의자, 아직도 냉전시대의 논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념 근본주의자, 세상은 오직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시장 근본주의자 등 수많은 근본주의자가 있다. 좀 더 열린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이러한 근본주의적 독선부터 청산해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 책은 동 · 서양 종교에 해박한 저자의 글답게 평이하면서도 선명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 어렵고 딱딱한 문제를 우화와 비유를 적절히 활용해 어렵지 않게 풀어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게 한다.

특히 퇴행에 다름없는 배타주의 풍토속에 갇혀 있는 기독교의 답답한 상황을 비유해 종교계에 던진 성숙한 제안이다.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전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엄청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범우사 창립 38주년 기념 2000만원 현상 《

범우 제19회 독후감 공모

진리와 자유를 위하여, 새 시대의 새 지식을 위하여— 범우사에서는 창립 38주년을 기념하여 독자 여러분의 독후감을 공모합니다.
그동안 좋은 책 만들기에 전력해온 범우사의 이번 독후감 공모 행사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구분 :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응모요령 : 대상도서를 읽고서 200자 원고지에 중·고등부는 12매 내외, 대학·일반부는 16매 내외로 독후감을 적어 본사 독후감 공모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곳 :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범우사 독후감 공모 담당자 앞, 또는 E-mail bumwoosa@cho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겉봉에 '독후감 응모작'이라 쓰고 응모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응모 분야(중 고등부, 대학·일반부)를 꼭 적어 보내 주세요.
》응모기간 : 2004년 6월 4일~8월 25일까지(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발 표 : 2004년 9월 10일(범우사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단체상은 개별통지)
》문 의 : 범우사 (031)955-6903 (편집부 김혜연)
》시상일자 : 2004년 9월 24일(금) 오후 3시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주 최 : 종합출판 범우사(www.bumwoosa.co.kr)

대상도서 ▶▶ 중·고등부

백범일지 김 구
목민심서 정약용/이민수
호질·양반전·허생전(외) 박지원(외)/이민수
열하일기 박지원/전규태
홍길동전·전우치전·임진록 허균(외)/전규태
이야기 이미륵/정규화
태평천하 채만식
빈처(외) 현진건
수난이대(외) 하근찬
한시가 있는 에세이 정진권
채근담 홍자성/최현
주홍글씨 N.호손/이정향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외) L.톨스토이/김진욱
그리스 로마 신화 T.불핀치/최혁순
위대한 개츠비 S.피츠제랄드/송관식
수필 피천득 지음
바다의 침묵 베르코르/조규철 이정림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
손자병법 손무/황병국
소설·알렉산드리아 이병주
유령의 집 최인호
복덕방 오정희
무소유(양장본) 법정
바보 되어주기 글 안순혜/그림 양은숙

대상도서 ▶▶ 대학·일반부

유토피아 T.모어/황문수
월든 H.소로/양병석
국부론(상·하) A.스미스/정해동
그리스 로마 신화 T.불핀치/최혁순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셰익스피어/이태주
일리아스 호메로스/유영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유영
젊은 예술가의 초상 J. 조이스/김종건
신곡(상·하) A.단테/최현
오만과 편견 J.오스틴/오화섭
변신·유형지에서 F.카프카/박환덕
밀레나에게 보내는 편지 F.카프카/박환덕
동물농장·1984년 G.오웰/김회진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정규화
돈 키호테 세르반테스/김현창
원본 삼국지(1~5권) 나관중/황병국
어머니 M.고리키/김현택
세일즈맨의 죽음 A.밀러/오화섭
에쿠우스 P.셰퍼/신정옥
인형의 집 H.입센/김진욱
근원수필 김용준
두진기행 김승옥
아라비안나이트(1~10권) 리처드 버턴/김병철
초한지(1~5권) 정비석
유럽신화 재클린 심슨/이석연

2000만원 시상

▶중·고등부
금 상(1명) | 문화상품권(30만원), 비평판 세계문학 1질(144권), 상장
은 상(3명) | 문화상품권(20만원), 사르비아 총서 1질(105권), 상장
동 상(5명) | 문화상품권(10만원), 범우문고 50권, 상장
장려상(10명) | 삼국지 1질, 전자수첩, 상장

▶대학·일반부
금 상(1명) | 문화상품권(50만원), 비평판 세계문학 1질(144권), 상장
은 상(3명) | 문화상품권(30만원), 범우문고 1질(201권), 상장
동 상(5명) | 문화상품권(10만원), 책과인생 1년 정기구독, 상장
장려상(10명) | 플루타르크 영웅전 1질, 전자수첩, 상장

▶단체상
중등부(1개교) | 상금 40만원+사르비아총서 1질(105권)=총 100만원 상당
고등부(1개교) | 상금 60만원+비평판세계문학 1질(144권)=총 200만원 상당

●협찬사 에이원프로

스테디 셀러!!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무소유
법정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김수환 추기경

갠지스 강가의 모래알 수의 갠지스 강들에 가득한 모래알만큼의 칠보(七寶) 공덕이 못 미치는 지혜, 법정 스님의 명언(名言)을 빌어 설파되는 무소유의 지혜. —도올 김용옥

무소유는 풍요 소유의 다른 이름이다. 나눔과 섬김의 바탕은 무소유에 있다.
'나는 한 그루 베어 내어 아깝지 않은 책'으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들겠다. —문구범

신45판 | 양장본 | 값 6,300원

중국역사박물관

중국사학회 엮음 | 강영매 옮김

전10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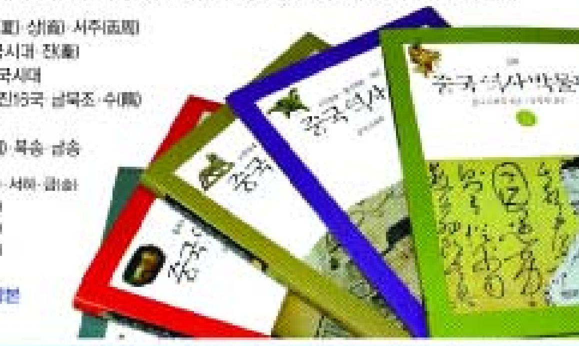
● 중국을 알려면 먼저 역사부터 알자
● 일반인과 청소년을 위한 중국 역사 쉽게 따라잡기
● 백과사전 식 편집, 2천5백 개의 방대한 컬러 도판!

〈중국 역사 박물관〉은 모두 10권으로 이뤄진 중국 통사로 역사 이전인 중국의 원시 사회부터 중국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가 멸망하기까지의 역사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알기 쉬운 [illegible] 사용과 2천5백 개의 풍부한 그림 자료를 통해 중국 역사 속의 중대 사건 및 중요 인물·과학 기술·문화 등 탁월한 성취를 역사 진보의 순서에 따라 생동감 있고 사실적이며, 체계적이고도 전면적으로 구성했다. 따라서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읽기에 적합한 중국 역사 지식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 1권 – 역사 이전·하(夏)·상(商)·서주(西周)
● 2권 – 춘추시대·전국시대·진(秦)
● 3권 – 서한·동한·삼국시대
● 4권 – 서진(西晋)·동진16국·남북조·수(隋)
● 5권 – 당(唐)
● 6권 – 5대 십국(十國)·북송·남송

근간
● 7권 – 요(遼)·서하·금(金)
● 8권 – 원(元)
● 9권 – 명(明)
● 10권 – 청(淸)

46배판 | 올컬러 | 양장본
각권 값 12,000원



온고지신(溫故知新)으로 21세기를! 범우사 www.bumwoosa.co.kr TEL.02)717-2121 FAX.02)717-0429